



해외보험리포트

멕시코

강윤지, 김가현

Executive Summary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지리적 강점과 청년층의 높은 비중·저렴한 인건비가 더해져 최근 차기 니어쇼어링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임. 또한 대내적으로 2025년 장기 개발 전략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를 발표하여 산업 능력 강화, 인프라 현대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멕시코 보험산업은 2013년 제정된 보험 및 보증기관법(LISF)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SolvencyII 체계를 도입하여 라틴아메리카 내 규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함. 2024년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 강화를 목표로 통합감독규정(CUSF)을 개정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전략과 정책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도록 함. 또한 최근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금제도,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2023년 멕시코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침투도는 2.5%, 보험밀도는 351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은 각각 43.9%, 5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손해보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

생명보험시장은 보험침투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가운데 시장 확대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망보험이 중심을 이루고 개인보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또한 보험밀도 역시 전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보급률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연금자산이 보험회사가 아닌 연금기금(AFORE)을 통해 운용되는 구조로 인해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함

반면 손해보험시장은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이 시장의 중심을 형성하는 가운데 재산보험, 책임보험, 보증·신용보험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보험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재산보험은 자연재해의 영향에 따라 보험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¹⁾²⁾

○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의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임

- 정식 명칭은 멕시코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으로 16세기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1821년 독립한 후 1824년 연방공화국으로 수립됨
- 북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해 북쪽으로는 미국,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미와 중남미 시장 진출의 거점임
 -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육로를 이용한 물품 운송 시 물류비 절감의 장점이 있으며, 태평양 및 대서양과도 맞닿아 있어 아시아·유럽과의 해상운송에도 강점이 있음
- 멕시코 마야·아스테크·톨테크 문명 등 아메리칸 인디오의 토착 문명을 지니고 있으며, 스페인 식민 통치를 통해 서구 문명이 유입되면서 혼합 문명이 형성되어 있음
 -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인해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전체 인구의 97%가 이를 사용하고 있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 최대 국가임
- 북미와 중남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인구의 62%가 아메리카 인디언과 스페인인 혼혈인 메스티소이며, 그 외 아메리카 인디언(21%), 아메리칸(7%), 기타(대부분 유럽계)(10%)로 이루어져 있음

○ 멕시코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9배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고지대에 위치해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분포를 보이며, 광활한 영토와 기후로 인해 지진, 허리케인, 홍수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가 발생함³⁾

- 면적의 크기는 196만 4,375km²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 규모임

1) KOTRA(2026), “국가지역정보-멕시코”

2) 외교부(2021. 8.), “멕시코 개황”

3) OECD(2013),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MEXICO”

- 국토 절반 이상이 고지대로 해발 평균이 중부는 2,600m, 북구는 1,200m에 달하며, 지역 및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분포가 나타나 일반적으로 저지대는 고온다습하고 고지대는 온난건조한 특성을 가짐
-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분포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4년 기준 총 28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국가 GDP의 0.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 특히 2023년 발생한 허리케인 오티스는 역대 허리케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혔으며,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킴⁵⁾

○ 2025년 기준 인구는 1억 3,195만 명으로 세계 10위 규모이며, 청년층의 비중이 높아 노동력이 풍부함

- 멕시코의 15~64세 인구는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며, 중위 연령이 30세로 나타나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한편 멕시코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30.0%), 이탈리아(25.1%) 포르투갈(24.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⁶⁾
- 또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대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85~2.09달러로 중국(2.73~3.65달러)보다 낮아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경쟁력이 있음

○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 8,480억 미국달러로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자동차·전자 등 수출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임

- 멕시코는 2021년~2023년 사이 연평균 약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2024년 한국을 앞지르고 13위로 올라섬
 - 미·중 갈등과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기업이 생산공장을 북미와 가까운 멕시코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멕시코는 대미 수출 1위를 기록함
- 또한 자원 의존적인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자동차·전자기기 등의 수출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임
 - 멕시코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자기기로 모두 제조업 제품이며, 2024년 멕시코 제조업의 GDP 부가가치 비중은 19.6%로 브라질(12.4%), 아르헨티나(15%) 등에 비해 높은 편임
 - 특히 누에보레온, 소노라, 치와와 등 북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음

⁴⁾ CENAPRED(2025), “Conoce el Impacto Socioeconómico de los Desastres en México 2024”

⁵⁾ Falvey Insurance Group(2024), “5 Major Natural Disasters of 2023”

⁶⁾ UNFPA(<https://www.unfpa.org/data/world-population/MX>); 2026. 3. 13. 검색 기준임

⁷⁾ UN(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표 1〉 멕시코 주요 국가 지표

항목	지표 현황	항목	지표 현황
면적	196만 4,375km ²	인구	1억 3,100만 명
생산가능인구	8,799만 명	65세 이상 인구	1,079만 명
소비자물가상승률	4.7%	경제성장률	1.5%
명목 GDP	1조 8,480억 USD	1인당 명목 GDP	13,971 USD
기대수명(남)	72.4세	기대수명(여)	78.0세

주: 각 지표는 2024년 기준임

자료: KOTRA(2026), “국가지역정보-멕시코”;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UN, Data Potal Population Division

○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1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무역협정, 문화협정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1966년 한-멕시코 무역협정을 맺어 경제 교류를 확대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은 멕시코의 5위 교역국, 멕시코는 한국의 12위 교역국으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 한-멕시코 FTA 협상은 현재 교착 중이며, 2026년에는 멕시코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협정(USMCA) 검토가 있어 그 이후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한국과 멕시코는 소비재, 첨단기술, 자동차,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2025년 1월 한국-멕시코 민관통상협력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ICT·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6월에는 반도체와 지식재산권 등 국가 미래 전략 분야를 주제로 한-멕시코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2025년 기준 멕시코는 세계 5위의 K-pop 시장으로 중남미 국가 중 1위이며, 뿐만 아니라 K-드라마에 대한 인기도 상당해 멕시코 내 한류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
- 2021년에는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멕시코 연방 차원에서 특정 국가 이민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임
 - 2019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과거 약 천여 명의 한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농장으로 이주한 날을 기리기 위해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후 주멕시코 대사관의 추진을 통해 2021년 멕시코 연방 차원에서 ‘한국 이민자의 날’을 지정하게 됨

2. 경제⁸⁾⁹⁾

○ 멕시코의 1940~1970년대는 ‘멕시코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연평균 약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기간임

- 멕시코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어 낸 큰 요인 중 하나는 단일 정당의 출현으로, 일당 독재 체제였으나 역설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됨
 - 1928년 이후 창당된 제도혁명당(PRI)은 1929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했으며, 정책의 일관성 등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
 - 이후 2000년까지 총 71년을 장기 집권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장기 집권에 따른 보수화,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함
- 1940년 이후 정치적 안정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전쟁특수,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개발전략 등으로 고도의 성장을 달성함
 - 1940~1950년 연평균 6.7%, 1950~1960년 5.8%, 1960~1970년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멕시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됨
 - 수입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내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인프라 및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경제정책이 시행됨

○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 개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함

- 정부 주도 개발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재정 불균형 및 국제수지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198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2%로 저성장 시기를 맞이함
-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화, 탈규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출 가공 산업 위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미흡 등 한계가 존재했음
-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 성장 시기 시행했던 수입대체개발전략을 포기하고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 증대를 추진하여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함

○ 1990년대는 과감한 시장 개방 및 민영화 정책 시행을 통한 세계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와 ‘데킬라 위기’라고 불리는 폐쇄화 폭락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겪은 격동의 시기임

⁸⁾ KOTRA(2007. 2.), “멕시코의 주요 산업: 자동차, 건설, IT, 자원개발”

⁹⁾ 외교부(2021. 8.), “멕시코 개황”

- 1990년대 초 정부는 멕시코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과감한 시장 개방 및 민영화 정책 등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여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다졌으며, 철강, 은행 등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자 함
- 1994년 12월, 대외 불균형과 정치적 불안 등의 여파로 페소화의 가치가 폭락하며 경제 위기에 직면함¹⁰⁾
 - 당시 멕시코는 달러 대비 페소화의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환율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물가가 상승하면서 페소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고평가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됨
 - 이에 정부는 부족한 외화를 채우기 위해 달러 가치에 연동된 단기 국채인 테소보노(Tesovonos)를 대량 발행했고 이로 인해 달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됨
 - 정치적으로는 치아파스 지역의 반군 봉기와 대선 후보의 암살 등의 사건이 잇따르며, 외국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었음
- 경제 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강력한 긴축정책,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2000년대 들어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와의 경기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 성장의 등락이 반복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제 개편, 에너지 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NAFTA 체결 이후 미국이 멕시코 수출 비중의 약 80%를 차지하며 대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미국 경제의 성장 방향이 멕시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1% 내외였으나, 2004년부터는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 추세와 더불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연평균 3.9% 성장률을 기록함
- 2006년 정부는 연금법 개정 및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구축함
- 또한 2008년에는 에너지 개혁을 통해 국영 석유회사가 외국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2010년대에는 통신, 에너지, 조세, 금융, 노동 등 제반 분야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높은 대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수출 및 경제 관계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에너지 분야 전기 및 자동차 연료 등의 요금이 인하되고 통신 시장 개방에 따라 전화요금 폐지 및 인하 등의 효과로 2015년 말 2.13%의 최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빈곤층 및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확대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¹⁰⁾ Fed(1996. 3.), "The Mexican Peso Crisis_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Finance"

- 최저임금 2배 인상을 통해 소득수준을 높여 중산층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교육훈련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빈민층 규모를 줄이고자 함
- 기존의 대외 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태평양 동맹(PA) 등을 통해 높은 미국 무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남미국가와 FTA 추진, EU와의 FTA 개정 등 아태 지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관계 다변화를 모색함

○ 최근 멕시코는 지리적 강점, 다수의 무역협정 등으로 차기 니어쇼어링¹¹⁾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2025년 장기 개발 전략인 ‘플란 멕시코(Plan Mexico)’를 발표하여 산업 자급 능력 강화, 인프라 현대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¹²⁾

- 기존 NAFTA 협정이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로 재편되어 역내가치비율¹³⁾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을 대신할 차기 니어쇼어링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과거에는 생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국의 저렴한 부품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였으나 역내 가치비율이 강화되면서 생산공장을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로 옮길 유인이 증가함
- 멕시코는 52개국과 14개의 FTA 및 5개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해 전 세계 GDP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세 혜택을 가지고 있음
- 2025년 정부는 산업 자급 능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인프라 현대화, 공공복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개발 전략을 발표함
 - ‘메이드 인 멕시코’ 전략을 통해 핵심 제조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에너지·교통·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각 부문별 30~340억 달러 규모의 계획 및 사업을 시행 중임
 - 투자유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경제개발지구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의 지역 분산형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 보건·주택·교육 등 사회복지 부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 공공임대주택 건설, 보편 장학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11) 니어쇼어링은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본국과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운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본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최근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니어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니어쇼어링은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국가로 몰리고 있음

12) KOTRA(2026), “국가지역정보-멕시코”

13)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이란 상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FTA 체결국(역내)에서 발생한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표 2〉 멕시코 주요 경제 정책 변천

시기	경제 상황	주요 내용
1940 ~1970년대	내수 중심의 성장을 통한 고도의 경제 성장기	• 수입대체개발전략 시행: 해외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내수 성장을 도모함 • 인프라 투자 강화: 도로망 확장 및 대규모 댐 건설 등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적극 시행함 •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도시화 및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됨
1980년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수입대체개발전략을 포기하고 시장 개방을 통한 개발 전략을 도모하기 시작함
1990년대	민영화·무역자유화 추진 및 경제 위기	• 민영화 정책: 1990년대에 은행·통신 등 공기업 대부분을 민영화함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제 경제 및 통상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함 • 폐소화 폭락사태: 대내외 불확실성·정치적 불안 등의 여파로 1994년 폐소화의 가치가 폭락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함
2000년대	대미 의존도 심화 및 안정적 거시환경 구축	• 대미 의존도 심화: 미국의 경제 움직임에 따라 멕시코 경제 상황이 좌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됨 • 에너지 개혁안 통과: 국영 석유회사가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개방을 시도함 • 세제 개혁안 통과: 공무원 연금법(SSSTE) 개정 및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세수를 증대함
2010년대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 제반 분야 개혁 가속화: 통신, 에너지, 조세, 금융, 노동 등의 개혁 가속화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최저 물가상승률 기록: 전기 및 자동차 연료 등 요금 인하, 통신 시장 개방에 따른 장거리 전화요금 폐지 등으로 2015년 말 2.13%의 최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대미의존도 탈피를 위한 경제 다변화: 남미국가, EU와 FTA 추진 및 개정,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관계 다변화를 모색함
2020~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편 및 장기 국가 개발 전략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편: 기존의 NAFTA가 USMCA로 재편되어 역내가치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을 대신한 니어쇼어링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플란 멕시코(Plan Mexico): 2024년 10월~2030년 9월까지 추진되는 장기 개발 전략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하고자 함

자료: KOTRA(2007. 2.), “멕시코의 주요 산업: 자동차, 건설, IT, 자원개발”; 외교부(2021. 8.), “멕시코 개황”; KOTRA(2025), “국가지역정보-멕시코”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멕시코 보험산업은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주요 보험 관련 법률은 보험 및 보증기관법(LISF)으로 보험회사의 규제와 감독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¹⁴⁾

- 멕시코의 보험 및 재보험은 연방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며, 멕시코 연방의 각 주에서 보험산업 관련 입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멕시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주요 법률은 2013년 제정된 보험 및 보증기관법(Ley de Instituciones de Seguros y Fianzas; LISF)이며, 보험회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한 최초의 법률임
 -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Solvency II 체계를 도입하여 이와 유사한 지급여력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험회사 규제 체계 마련 및 사업 위험 평가의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함

〈표 3〉 멕시코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시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1935년	• 보험계약법(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LCS) : 최초의 구체적인 보험 관련 법률을 제정함
1999년	• 금융서비스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ón y Defensa al Usuario de Servicios Financieros) : 금융서비스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자문 및 법률 지침을 제공함
2006년	• 해상무역법(Ley de Navegación y Comercio Marítimos) : 해상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함
2013년	• 보험 및 보증기관법(Ley de Instituciones de Seguros y Fianzas; LISF) : Solvency II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험회사 규제 체계 마련 및 사업 위험 평가의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기존 보험기관 및 상호조합에 관한 일반법(LGISMS)을 대체함
2014년	• 보험 및 보증 통합감독규정(Circular Unica de Seguros y Fianzas; CUSF) : LISF에 대한 실무규정을 제공하는 단일 규정집임
2018년	• 핀테크법(Ley para regular las instituciones de tecnología financiera; Ley Fintech) : 보험산업 내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임시 인가를 부여함

¹⁴⁾ Amazon(2021), "Mexico law and practice"

〈표 3〉 계속

시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2019년	• 보험 및 보증 통합감독규정 1차 개정안 : 금융기관규제법에 따라 CUSF를 개정하여 보험감독기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 보험 및 보증 통합감독규정 2차 개정안 : 2025년 1월부터 투자 전략에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2025년	• 연방 세입법(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on 2026)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함

자료: AXCO(2026),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6),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¹⁵⁾

- 멕시코 보험산업은 재무부 산하의 보험감독기관(Comision Nacional de Seguros y Fianzas; CNSF)이 감독함
 - 멕시코 보험감독기관은 2013년 보험 및 보증기관법(LISF)이 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보험회사 및 보증기관의 설립인가, 전반적인 운영 감독 등에 대해 권한이 있음
 - 보험감독기관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최소 8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격월 회의를 통해 인가의 부여, 변경 및 취소, 포트폴리오 양도 승인 등을 결정함
 - 2010년에는 국제보험협회(IAIS)와 다자간 양해각서(M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국경을 넘는 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 교환을 위한 틀을 제공함
- 또한 퇴직저축감독청(Comision Nacional del 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 CONSAR)은 멕시코의 연금 체계를 관리하고 감독함
 - 멕시코 연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 연금기금 운용사(Administradores de Fondos para el Retiro; AFORE)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 산하의 퇴직저축감독청(CONSAR)에서 민간 운용사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¹⁵⁾ AXCO(2026),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6),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가. 멕시코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2024년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 강화를 목표로 보험 및 보증 통합감독규정(Circular Unica de Seguros y Fianzas; CUSF) 2차 개정안을 발표함¹⁶⁾
 - 기존의 통합감독규정은 재무적 건전성과 정량적인 수치 관리를 위한 규제가 주된 목표였으나 기술 변화, 기후 변화, 급격한 사회 변동 등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규제의 방향을 넓히고자 함
 - 앞서 2019년에는 1차 개정을 통해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멕시코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 바 있음
 - 2024년 2차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 근거를 마련함
 - ESG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 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명시함
 - 기업의 이사회는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반영해야 하며, 규정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독립적인 검증 체계나 내부 감사 절차를 갖추어야 함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멕시코에서 보험회사의 면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사업 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을 금지함
 - 면허는 크게 생명보험,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됨
 - 생명보험은 전반적인 생명보험업에 대한 하나의 면허가 부여되고 개인 상해 및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보건부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함
 - 개인상해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내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함
 - 기존의 종합보험회사(Composite Insurers)는 생명 및 손해보험 준비금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나 신규 종합보험회사에 대한 인가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
- 보험 및 보증기관법(LISF) 도입 이후 손해보험 하위 종목으로 이행보증보험(Surety)이 신설됨
 - 기존의 전통적인 보증 방식과는 차별화된 보험 리스크 관리 기법을 적용한 보증 서비스로 이행보증보험

¹⁶⁾ 멕시코 재무부(2026. 6. 5.), “Circular Modificatoria 2/24 de la Única de Seguros y Fianzas”

면허를 취득한 보험회사는 보증과 신용보험 종목을 함께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이행보증, 보증, 신용보험 외 다른 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함께 취급할 수 없음

- 보증업무만 전문으로 하던 보증회사가 이행보증보험을 포함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재등록해야 함

다. 보험회사 최소 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 멕시코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인플레이션 연동 단위(UDI)로 명시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

- 멕시코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가받은 종목별로 최소 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은 멕시코 특유의 인플레이션 연동 단위(Unidad de Inversión; UDI)로 명시됨
 - 보험회사는 설립 시점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이 최소 납입 자본금 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험감독기관에 증명해야 함
 - 2025년 6월 기준 1UDI는 8.47 멕시코 페소(0.40 미국달러)임
- 최소 납입 자본금은 생명보험 약 270만 미국달러, 개인상해와 건강보험 68만 미국달러, 연금 1,120만 미국달러이며,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경우 인가받은 종목 개수에 따라 각각 205만~1,328만 미국달러, 292만~487만 미국달러임
 - 재보험회사의 경우 위 금액의 50%를 보유해야 함

○ 멕시코에서는 지급여력자본요건(Requerimiento de Capital de Solvencia; RCS)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납입 자본금과는 별도로 충분한 자기자본(fondos propios admisibles; FPA)을 보유하도록 함

- 멕시코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회사의 내부 모델을 기반으로 매월 지급여력자본요건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기자본은 기술 및 재무적 보험 리스크, 최대 예상 손실(MPL), 거래 상대방(Counter-party) 리스크, 운영 리스크를 고려하여 산출됨

라. 소비자보호 규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은 1999년 금융서비스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소비자 보호위원회(CONDUSEF)를 통해 해결됨

- 금융서비스소비자위원회(CONDUSEF)는 문의 및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를 통해 금융서비스 소비자에게 자문 및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과거에는 보험감독기관(CNSF) 내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 관련 업무를 해결하였으나 1999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이후 금융서비스소비자위원회(CONDUSEF)에서 담당함
 - 위원회의 중재 결과는 보험회사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급 기준 100~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15년 보험계약 내 부당 조항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2022년 금융기관의 보고 요건을 표준화하여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보고 및 준수 의무를 지도록 함
 - 부당 조항은 당사자 간 불공정한 권리나 의무를 초래하는 약정, 용어 또는 조건으로 정의됨
 -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중복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범죄행위의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2014년 정부의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국(Buró de Entidades Financieras)을 설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회사 및 상품별 소비자 민원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외국 자본은 최대 100%까지 투자가 허용되며, 외국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 이후 북미 보험회사들의 멕시코 기업 투자가 수월해졌으며, 외국인 투자는 자회사 설립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합작 투자의 경우 투자 허용 한도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00년에 100%에 도달하였으며, 외국 기업의 시가총액 지분 상한선도 폐지되었음
 - 유럽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법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 자회사를 이용하여 멕시코로 진출하기도 함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멕시코는 자본을 건전성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자본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투자 전략에 ESG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은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나뉘며, 현금화가 쉽고 안정적인 레벨1 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유도함
 - 레벨1과 레벨2 자본으로 대부분을 채워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레벨3 자본의 경우 전체 자본의 15%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음
- 2024년 보험 및 보증기관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투자 전략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금융 관행 촉진을 목적으로 함

사. 의무보험

- 멕시코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이 600개 이상이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무보험은 주로 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으로 10여 개에 불과함
- 멕시코의 의무보험은 대부분 보험 관련 법률이 아닌 연방,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발표한 법률 및 규정을 따르고 있음
 - 일부 보험은 책임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모호한 조항, 자기부담금 및 면책 조항의 부재 등의 한계가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이 불확실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부 책임은 보험 외 보증과 같은 수단으로 의무를 대신하기도 함

〈표 4〉 멕시코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	연방 도로 및 교량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인명 및 재물 피해를 보장함
공영 주차장 배상책임	멕시코시티 내 주차장 운영자는 차량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항공기 및 항공 운송업자 배상책임	항공기 사고 및 국제 노선 승객 부상, 수하물·화물 손해를 보장함
상업용 드론 배상책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의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함
여객 및 운송업자 배상책임	모든 유료 승객 운송 수단의 사고와 운송업체의 배상책임을 보장함
선박 제3자 배상책임	어선 및 항해 선박의 제3자 피해와 선주책임을 보장함
석유 및 가스 부문 기업을 위한 배상책임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탐사, 생산, 처리 및 정제 활동 그리고 운송 및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며, 주유소도 대상에 포함됨

〈표 4〉 계속

종류	관련 내용
환경 및 유해 폐기물 책임보험	고위험 활동 또는 유해 폐기물 생성·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함
관광 및 숙박업자 배상책임	호텔 및 레저 관광 운영 중 발생하는 이용객 피해를 보장함
항만 책임보험	항만 운영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함
공항, 철도 및 화물 터미널 운영업체 배상책임	공항, 철도 및 화물 터미널을 운영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함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재보험 및 보증 중개인의 업무상 과실을 보장함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을 보장함

자료: AXCO(2026),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아. 사회보장법

- 멕시코의 사회보장제도는 1917년 정치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고용주는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장애, 사망, 해고 및 기타 상황에 대한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기금 설립의 장려를 규정하고 있음
- 1943년 멕시코 사회보장기구(IMSS)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 근로자 및 정부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며, 2025년 기준 사회보장연구소(IMSS)에 대한 지원금은 2024년 대비 4.7% 증가한 1조 4,700억 멕시코 페소임
 - 보장 적용 범위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자영업자, 농업에 종사하는 멕시코 국민, 원주민으로 분류되는 국민은 포함되지 않음
 - 단, 사회보장기구(IMSS)는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공무원 사회보장기구(ISSSTE)에 의해 관리됨
- 최근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금, 노동 등 다양한 정책을 제·개정 하여 사회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2024년 보건부는 공공 의료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2024년 ‘2024-2030 보건 부문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사회보장기구(IMSS) 강화, 전자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24년 사회보장법(LSS) 및 퇴직연금제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8세에서 65

세로 낮추어 65세 이상 퇴직자는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월 연금을 수령하게 됨

- 2024년부터는 연방 노동법이 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보장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버, 디디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해당 분야 종사자 간의 공식적인 고용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함
- 2025년 여성 복지 연금(Pension Mujeres Bienestar)이 도입되어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계 멕시코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60~64세 여성과 그 외 지역의 63~64세 여성에게 연금이 지급됨

〈표 5〉 멕시코 주요 사회보장법

연도	관련 내용
1972년	• 근로자주택기금법(Ley del Instituto del Fondo Nacional de la Vivienda para los Trabajadores) : 정부, 기업, 근로자가 참여하는 주택기금으로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1995년	• 사회보장법(Ley del Seguro Social; LSS) : 멕시코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며, 질병, 사고, 장애 및 의료 혜택 관련 법률을 제공함
1996년	• 퇴직연금저축제도(Ley de los Sistemas de Ahorro para el Retiro) : 민간 연금기구 운용사(AFORE) 운영 및 관리의 바탕이 되는 핵심 법률임
2004년	• 사회복지서비스법(Ley de Asistencia Social)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2007년	• 공무원사회보장법(Ley del Instituto de Seguridad y Servicios Sociales de los Trabajadores del Estado) : 공공 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구인 공무원사회보장기구(ISSSTE)의 운영과 혜택을 규정함
2008년	• 고용보호 및 장려법(Ley de Protección y Estimulo al Empleo del Distrito Federal) : 경기 침체기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보험 제도를 재정비하여 도입함

자료: AXCO(2026),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

III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2023년 멕시코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8위를 차지함
 - Swiss Re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는 약 451억 달러이며, 미주 시장에서는 미국(1위), 캐나다(8위), 브라질(12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 업권별로 보면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0.7%를 차지하여 23위 규모이고, 손해보험시장은 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0.6%를 차지하여 16위 규모임
- 2023년 멕시코 보험산업의 보험침투도는 2.5%이고, 보험밀도는 351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889달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023년 멕시코 보험산업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업이 약 1.1%, 손해보험업이 약 1.4%임
 - 2023년 멕시코 보험산업 보험밀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 각각 154달러, 197달러임

〈표 6〉 미주 지역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3년)

(단위: %, 백만 USD, %, 달러)

구분	전 세계 순위	전 세계 점유율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미국	1위	44.9	3,226,684	11.9	9,640
캐나다	8위	2.4	170,520	8.0	4,267
브라질	12위	1.2	84,489	3.9	390
멕시코	18위	0.6	45,062	2.5	351
칠레	39위	0.2	13,297	4.0	668
아르헨티나	41위	0.1	10,315	1.5	225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4), "World insurance", sigma 3/2024

- 멕시코 보험시장은 2023년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 비중이 각각 43.9%,

56.1%로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업 비중이 하락하고, 손해보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 2019~2023년간 멕시코 생명보험업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생명보험업 보험료는 2019년 141억 9,300만 달러에서 2023년 197억 7,900만 달러로 약 39.4%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험시장에서의 생명보험업 비중은 45.5%에서 2023년 43.9%로 1.6%p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업의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
 - 2019년 손해보험업 보험료는 163억 200만 달러에서 2023년 252억 8,300만 달러로 약 55.1%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의 손해보험업 비중은 53.5%에서 56.1%로 2.6%p 증가하였음

〈표 7〉 멕시코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2019~2023년)

(단위: 백만 USD,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생명보험	14,193(46.5)	12,759(46.1)	15,027(46.7)	15,071(44.0)	19,779(43.9)
손해보험	16,302(53.5)	14,930(53.9)	17,134(53.3)	19,159(56.0)	25,283(56.1)
전체	30,495	27,689	32,161	34,230	45,062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2023년 기준 멕시코 전체 금융산업 총자산 중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총자산의 비중은 7.8%임

- 2023년 멕시코 금융산업의 총자산은 약 2조 3,648억 멕시코 페소로 확대되며, 최근 5년간 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보험산업 총자산은 2019년 1조 6,875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3년 2조 3,648억 멕시코 페소로 확대되며 약 40.1%로 증가함
- 멕시코 보험산업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보험회사의 투자활동을 통해 운용되는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보험산업의 투자자산은 약 1조 7,437억 멕시코 페소로 전체 보험산업 총자산의 약 73.7%를 차지함
- 보험산업 자산은 채권 중심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중 채권이 약 1조 1,593억 멕시코 페소로 전체 투자자산의 66.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주식 및 해외투자 자산이 그 뒤를 차지함

〈표 8〉 멕시코 금융산업에서의 보험산업 총자산 비중(2019~2023년)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0	2020	2021	2022	2023
전체 보험산업	금액	1,687,453	1,856,347	2,005,332	2,105,800	2,364,819
	비중	7.1	7.4	7.6	7.5	7.8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표 9〉 멕시코 보험산업 투자자산 구성(2019~2023년)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권	금액	778,019	895,109	957,346	1,059,063	1,159,294
	비중	62.9	64.5	63.9	66.9	66.5
주식(변동)	금액	206,186	222,946	264,545	273,840	313,096
	비중	16.7	16.1	17.6	17.3	18.0
주식(고정)	금액	186,276	184,944	174,599	164,567	176,794
	비중	15.1	13.3	11.6	10.4	10.1
해외투자	금액	48,896	70,822	80,832	81,983	92,821
	비중	4.0	5.1	5.4	5.2	5.3
파생상품	금액	753	1,294	2,124	943	1,170
	비중	0.1	0.1	0.1	0.1	0.1
기타	금액	16,814	13,645	19,908	1,428	533
	비중	1.4	1.0	1.3	0.1	0.0
합계	금액	1,236,944	1,388,760	1,499,354	1,581,824	1,743,70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 멕시코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투자수익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험회사의 투자자산 규모는 2019년 약 1조 2,369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3년 약 1조 7,437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약 41.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은 2019년 약 794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3년 약 1,253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투자수익률은 2019년 6.4%에서 2023년 7.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멕시코 보험산업 투자수익 현황(2019~2023년)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투자자산	1,236,944	1,388,760	1,499,354	1,581,824	1,743,708
투자수익	79,391	78,790	101,604	92,354	125,262
수익률	6.4	5.7	6.8	5.8	7.2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2023년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각각 154달러와 1.1%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보험산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의 보험밀도는 2019년 111달러에서 2023년 154달러로 증가하여 보험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보험침투도는 2019년 1.1%에서 2023년 1.1%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시장의 경제 내 역할 및 기여도가 제한적인 구조를 보임

〈표 11〉 멕시코 생명보험산업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변화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밀도	멕시코	111	99	115	118	154
	전 세계	379	360	382	354	361
보험침투도	멕시코	1.1	1.2	1.2	1.1	1.1
	전 세계	3.4	3.3	3.0	2.8	2.9

- 2024년 멕시코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4,140억 멕시코 페소였으며, 사망보험(Life)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4,140억 멕시코 페소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상해 및 건강보험(Personal Accident & Health)은 1,697억 멕시코 페소로 29.1%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종목별 수입보험료를 보면 사망보험(Life)의 비중이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

- 사망보험의 경우 2020년 약 72.8%에서 2024년 70.9%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개인 상해 및 건강보험은 2020년 27.2%에서 2022년 30.5%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약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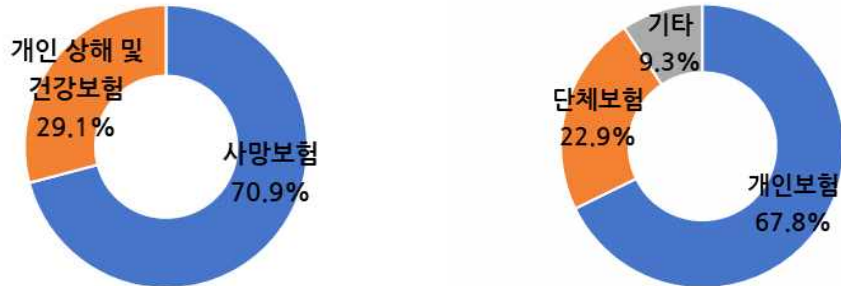
〈표 12〉 멕시코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망보험 (Life)	금액	273,015	296,848	299,894	350,512	414,099
	비중	72.8	72.1	69.5	70.2	70.9
개인 상해 및 건강보험 (Personal Accident & Health)	금액	102,068	114,829	131,304	148,783	169,654
	비중	27.2	27.9	30.5	29.8	29.1
합계	금액	375,084	411,678	431,198	499,295	583,75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그림 1〉 멕시코 생명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4년)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에서는 개인보험(Individual)이 단체보험(Group)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개인보험의 비중은 67.8%, 단체보험은 22.9%, 기타는 9.3%로 나타남
- 개인보험은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형태로 나타남
 - 개인보험의 경우 2020년 약 65.5%에서 2024년 67.8%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단체보험은 2020년 23.8%에서 2024년 22.9%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기타 계약의 경우 2021년 일시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 계약의 비중은 2021년 16.0%에서 2024년 9.3%로 감소함

〈표 13〉 멕시코 생명보험 계약형태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보험(Individual)	금액	178,892	179,992	184,252	227,463	280,513
	비중	65.5	60.6	61.4	64.9	67.8
단체보험(Group)	금액	64,940	69,447	74,992	85,891	94,998
	비중	23.8	23.4	25.0	24.5	22.9
기타(Other)	금액	29,183	47,409	40,650	37,158	38,588
	비중	10.7	16.0	13.6	10.6	9.3
합계	금액	273,015	296,848	299,894	350,512	414,0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멕시코의 연금제도는 민간 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금자산은 보험회사가 아닌 연금기금 (Administradoras de Fondos para el Retiro; AFORE)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로 보험시장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 멕시코의 노령연금 제도는 1997년 연금개혁 이후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연금기금 운용사(AFORE)가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멕시코의 노후자산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연금자산의 적립 단계에서는 보험상품이 아닌 금융투자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장기저축 기능이 제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를 보임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시장은 연금보험 및 저축성 상품을 통해 장기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가지나, 멕시코는 해당 기능이 연금기금(AFORE)으로 대체되어 보험회사의 자산 축적 경로가 제한됨
- 특히 연금자산의 대부분이 적립 단계에서 보험시장 외부에 존재함에 따라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가 구조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멕시코 연금시장의 자산 규모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금시장 자산은 2019년 약 3조 9,865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3년 약 5조 9,460억 멕시코 페소로 확대되었으며 약 4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멕시코 연금시장 자산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금시장 자산	금액	3,986,480	4,709,808	5,235,892	5,224,293	5,945,974
	증가율	20.3	18.1	11.2	-0.2	13.8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 2024년 기준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주요 보험회사들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6.4%를 차지함

- 2024년 기준 MetLife Mexico는 멕시코 생명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의 14.4%를 차지하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Grupo Nacional Provincial, Seguros BBVA Bancomer, Citibanamex Seguros, Seguros Monterrey New York Life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3.9%, 10.2%, 9.6%, 7.4%로 나타남
-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상위 보험회사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Citibanamex Seguros와 HSBC Seguros는 각각 66.4%, 73.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부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Zurich Santander Seguros Mexico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5〉 멕시코 생명보험시장 상위 10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순위	회사명	2023		2024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MetLife Mexico	79,147	15.9	84,281	14.4	6.5
2	Grupo Nacional Provincial	73,426	14.7	80,932	13.9	10.2
3	Seguros BBVA Bancomer	51,762	10.4	59,293	10.2	14.6
4	Citibanamex Seguros	33,779	6.8	56,200	9.6	66.4
5	Seguros Monterrey New York Life	38,611	7.7	42,980	7.4	11.3
6	AXA Seguros	32,912	6.6	36,881	6.3	12.1
7	Seguros Banorte	26,236	5.3	31,657	5.4	20.7
8	Allianz Mexico	14,925	3.0	18,717	3.2	25.4
9	Zurich Santander Seguros Mexico	18,474	3.7	17,664	3.0	-4.4
10	HSBC Seguros	9,806	2.0	17,020	2.9	73.6
생명보험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		379,078	75.9	445,625	76.4	17.6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4년 멕시코 생명보험시장에서 사망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을 포함한 지급보험금은 약 3,165억 멕시코 페소로 나타남

- 2024년 지급보험금 중 사망보험이 1,983억 멕시코 페소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62.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132억 멕시코 페소로 35.8%를 차지하여 사망보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반면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14억 멕시코 페소(0.5%), 35억 멕시코 페소(1.1%) 수준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급 건수 기준으로는 의료보험 지급 건수가 약 175만 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16〉 멕시코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3			2024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사망 (Vida)	171,616	63.6	506,721	198,331	62.7	597,310
상해 (Accidentes personales)	1,306	0.5	200,429	1,459	0.5	267,730
의료 (Gastos médicos)	96,318	35.7	1,639,528	113,206	35.8	1,753,311
건강 (Salud)	3,171	1.2	969,346	3,501	1.1	1,216,638
합계	272,411	100.0	3,316,024	316,497	100.0	3,834,989

자료: Comisión Nacional de Seguros y Fianzas(CNSF), "Formas Estadísticas de Seguros (FES)", 각호

○ 멕시코 생명보험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설계사(Agen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판매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 비중은 29.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그 뒤로 중개사(Brokers) 26.8%, 기타 채널 19.6%,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15.9%, 직접판매(Direct) 8.5% 순으로 나타남
 - 은행 계열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은 보험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대규모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판매채널 구조를 보면 보험설계사와 중개사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와 직접판매 채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방카슈랑스의 경우 2019년 29.4%에서 2023년 15.9%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중개사의 비중은 2019년 16.2%에서 2023년 2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멕시코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단위: %)

채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접판매(Direct)	13.0	n/a	9.2	9.7	8.5
중개사(Broker)	16.2	n/a	26.0	27.2	26.8
보험설계사(Agent)	25.2	n/a	29.6	30.9	29.2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29.4	n/a	14.0	14.1	15.9
기타	16.3	n/a	21.2	18.1	19.6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2023년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각각 197달러와 1.4%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며, 보험시장의 규모 및 성숙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멕시코의 보험밀도는 2019년 128달러에서 2023년 197달러로 증가하여 보험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보험침투도는 2019년 1.3%에서 2023년 1.4%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시장의 전반적인 확산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18〉 멕시코 손해보험산업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변화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밀도(달러)	멕시코	128	116	131	146	197
	전 세계	379	360	382	354	361
보험침투도(%)	멕시코	1.3	1.4	1.3	1.3	1.4
	전 세계	3.4	3.3	3.0	2.8	2.9

- 2024년 멕시코 손해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3,580억 멕시코 페소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Motor)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2020년 1,060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1,939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시장 비중은 54.2%로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재산보험(Property)은 2020년 488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695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손해보험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시장 비중은 19.4%로 나타나며, 2021년 이후 전체 손해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증·신용보험(Surety, Bonds & Credit)은 2020년 142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216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에는 비중이 7.4%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4년 기준 6.0% 수준을 나타냄
- 책임보험(Liability)은 2020년 145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205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시장 비중은 2021년 7.3%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5.7% 수준으로 나타남
- 해상·항공·운송보험(Marine, Aviation & Transit)은 2020년 134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185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였으나 연도별 변동성이 비교적 큰 특징을 보임
 - 2024년 기준 시장 비중은 5.2% 수준으로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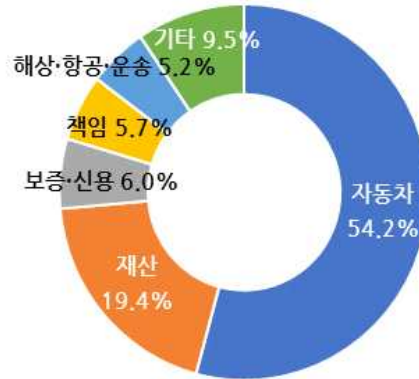
〈표 19〉 멕시코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동차 (Motor)	금액	106,011	108,276	120,771	153,579	193,928
	비중	47.6	44.1	46.4	49.3	54.2
재산 (Property)	금액	48,783	56,128	55,421	64,344	69,454
	비중	21.9	22.8	21.3	20.6	19.4
보증·신용 (Surety, Bonds & Credit)	금액	14,217	15,519	19,366	20,582	21,610
	비중	6.4	6.3	7.4	6.6	6.0
책임 (Liability)	금액	14,512	18,022	17,427	19,976	20,462
	비중	6.5	7.3	6.7	6.4	5.7
해상·항공·운송 (Marine, Aviation & Transit)	금액	13,414	19,394	15,996	18,910	18,499
	비중	6.0	7.9	6.2	6.1	5.2
기타 (Miscellaneous)	금액	25,903	28,365	31,071	34,323	34,013
	비중	11.6	11.5	11.9	11.0	9.5
합계	금액	222,840	245,705	260,051	311,714	357,96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그림 2〉 멕시코 손해보험 상품별 보험료 비중(2024년)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4년 기준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에서 주요 보험회사들의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8.2%를 차지함
 - 2024년 기준 Qualitas, Compañía de Seguros가 멕시코 손해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의 18.4%를 차지하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Grupo Nacional Provincial, AXA Seguros, Chubb Seguros Mexico, Seguros Inbursa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9.9%, 7.2%, 6.9%, 5.2%로 나타남
 -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에서는 주요 보험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Grupo Nacional Provincial과 Qualitas는 각각 35.4%, 3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부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Chubb Seguros Mexico와 MAPFRE Mexico의 성장률은 각각 9.6%, 5.5%로 나타나 상위 보험 회사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표 20〉 멕시코 손해보험시장 상위 10개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순위	회사명	2023		2024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Qualitas, Compañía de Seguros	50,417	16.2	65,890	18.4	30.7
2	Grupo Nacional Provincial	26,255	8.4	35,558	9.9	35.4
3	AXA Seguros	21,886	7.0	25,905	7.2	18.4
4	Chubb Seguros Mexico	22,359	7.2	24,506	6.9	9.6
5	Seguros Inbursa	15,768	5.1	18,690	5.2	18.5
6	Seguros BBVA Bancomer	14,038	4.5	17,826	5.0	27.0
7	MAPFRE Mexico	16,432	5.3	17,327	4.8	5.5
8	Seguros Banorte	11,381	3.7	13,736	3.8	20.7
9	Seguros Atlas	11,169	3.6	12,911	3.6	15.6
10	HDI Seguros	11,560	3.7	12,761	3.6	10.4
손해보험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		200,765	64.5	244,110	68.2	21.6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4년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의 지급보험금은 약 1,690억 멕시코 페소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종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 관련 보험금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Motor) 종목 지급보험금이 약 1,130억 멕시코 페소로 전체의 약 65.0%를 차지 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그 다음으로는 재산(Property)이 약 236억 멕시코 페소(14.0%), 해상·항공·운송(Marine, Aviation & Transit)이 약 139억 멕시코 페소(8.2%), 기타(Miscellaneous)가 약 125억 멕시코 페소(7.2%) 수준으로 나타남
- 재산(Property) 종목의 지급보험금은 2023년 425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236억 멕시코 페소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에는 허리케인·홍수 등 기상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재산보험 지급보험금이 일시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에서 재산보험 지급보험금은 허리케인·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연도별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임
 - 특히 멕시코는 지진·허리케인 등 대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로 재해 발생 시 정부 재정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속한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보상 방식이 아닌 파라메트릭 구조의 대재해 채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인 5억 9,500만 달러를 발행함¹⁷⁾

¹⁷⁾ The World Bank(2025. 2. 27.), "World Bank Catastrophe Bonds Provide Mexico with \$595 million Financial Protection against Hurricanes and Earthquakes"

- 비중이 낮은 종목에서 지급보험금 일부 증가세가 나타남
 - 책임(Liability)보험 지급보험금은 2023년 55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73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비중도 3.1%에서 4.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보증·신용(Surety, Bonds & Credit)보험은 2023년 9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13억 멕시코 페소로 증가하며 비중이 0.5%에서 0.8%로 소폭 확대됨
- 반면 농업(Agricultural) 종목 지급보험금은 2023년 약 10억 멕시코 페소에서 2024년 약 8억 멕시코 페소로 감소하며 비중도 0.6%에서 0.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멕시코 손해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MXN) %)

구분	2023			2024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자동차 (Motor)	95,880	53.8	5,580,152	112,958	65.0	5,513,220
재산 (Property)	42,451	23.8	42,767	23,615	14.0	53,018
해상·항공·운송 (Marine, Aviation & Transit)	22,813	12.8	27,869	13,850	8.2	30,290
책임 (Liability)	5,474	3.1	46,261	7,284	4.3	53,723
농업 (Agricultural)	983	0.6	21,244	787	0.5	19,162
보증·신용 (Surety, Bonds & Credit)	850	0.5	2,771	1,302	0.8	4,688
기타 (Miscellaneous)	9,663	5.4	180,333	12,503	7.2	193,037
합계	178,115	100.0	5,901,397	168,974	100.0	5,883,629

자료: Comisión Nacional de Seguros y Fianzas(CNSF), "Formas Estadísticas de Seguros (FES)", 각호

○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판매채널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멕시코 손해보험시장에서 보험설계사(Agent)는 약 35~45%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판매채널로 나타남
 - 보험중개인(Broker)의 비중은 약 15~25% 수준으로 설계사 채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판매(Direct)의 비중은 약 20~30% 수준으로 나타나며 정부 관련 보험계약 등 일부 영역에서 활용됨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약 10~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채널로 나타남
- 인터넷 판매채널의 비중은 약 3~5% 수준으로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별 비중은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아 시장 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
 - 이는 보험종목별로 주요 판매채널이 상이하고 보험회사별 판매 전략에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채널별 비중을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표 22〉 멕시코 손해보험시장 판매채널별 비중 추이

(단위: %)

채널 구분	2022	2023	2024
직접판매(Direct)	20~30	20~30	20~30
중개사(Broker)	15~25	15~25	15~25
보험설계사(Agent)	35~45	35~45	35~45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10~20	10~20	10~20
인터넷판매(Internet)	3~5	3~5	3~5

자료: AXCO(2025),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

IV

시사점

- 멕시코는 최근 ‘플란 멕시코(Plan Mexico)’ 정책으로 제조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등 투자 유치 계획이 확대되고 있으며, 멕시코 보험협회(AMIS)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 가장 큰 투자기관인 보험협회(AMIS)는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지지하며, 국책 사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Surety)과 재물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차기 니어쇼어링 생산 거점으로서 주목받으며 여전히 북미 생산망의 전략적 허브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제조 시설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 금액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이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순 화재보험을 넘어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기업 휴지보험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멕시코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0.6% 규모로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가 세계 평균 대비 낮아 보험 보급 수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시장으로 평가됨
 - 멕시코 보험시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권(43.9%)과 손해보험업권(56.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생명보험시장 비중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손해보험시장 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생명보험시장은 사망보험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개인보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자산이 보험회사가 아닌 연금기금(AFORE)을 통해 운용되는 구조로 인해 시장 확대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함
 -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재산보험은 자연재해 영향에 따라 보험금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저자약력

강윤지 연구원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김가현 연구원 / 응용경제학 석사

2026 해외보험리포트

멕시코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인 김현수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원센티널빌딩